제6회 신진학자포럼

초대교회 세례교육, 순결한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교회여, 교회 문턱을 높여라"

정두성 박사

개혁주의학술원(원장 이신열 교수) 제6회 신진학자포럼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신반포중앙교회(김지훈 목사)에서 진행됐다.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황대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정두성 박사(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가 '초대교회 세례준비자 교육과 한국교회 함의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진지훈 박사(제기동교회, 성경과 고고학 편집장)가 '칼빈의 성경주석을 통해 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특별히 정두성 박사는 초대교회의 세례자 중심의 교회교육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또한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의점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초대교회 신앙교육의 주 대상은 세례를 준비하는 새신자들이고 종교개혁시기는 세례를 받았으나 성경과 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그 교육의 주 대상이었다"라며 "오늘 한국교회에서 어떠한가?"라는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초대교회는 엄격한 세례준비교육을 통해 개종자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 변했고, 그것은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앞으로 받게 될 세례는 물론 성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용현 차장

초대교회 세례중심의 교회교육,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

정두성 박사는 "초대교회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중심에 항상 세례가 자리하고 있다"라며 "이는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순결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체계를 정리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초대교회 당시 교육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교육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는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교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날 정 박사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이 증명되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삶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것. 당시 초대교회는 세례준비자로 등록하려는 자들의 믿음의 동기, 생활상태, 직업을 미리 점검했고,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세례준비의 과정에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엄격했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례준비자(Catechumens)가 되면 2-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변화된 삶을 증명하고, 이후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세례적임자(Petitioners)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고 나면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교육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 수세자(the newly-baptised)는 세례 직후 일주일간 세례 후 교육이 행해졌다. 이렇게 형성된 세례중심의 새신자 교육은 3-4세기에 이르러서는 세례준비과정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으로 정 박사는 "초대교회는 세례후보자 교육을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절대 여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교육 과정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즉, 초대교회는 새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다짐하고 나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이 변할 뿐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인 박해에서도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데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교회 문턱을 높여라'

이날 정두성 박사는 발제를 통해 현대의 한국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회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대교회는 세례준비자를 교육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세례후보자로 2-3년의 훈련과정을 거쳐 세례적임자가 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점검요인은 변화된 삶의 객관적인 증거였고, 이를 증명해 줄 성도들의 실질적인 증언이 세례적임자 후보자의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현재 한국 장로교의 세례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교할 때 아쉬운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교육과 점검은 많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한국교회가 세례준비자 교육을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가 개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세례 준비의 과정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를 찾은 새가족이 부담 없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 이렇게 세례를 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신실한 신자 생산을 세례준비자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지 못하는 있다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치라'

또한 그는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라'고 강조했다. 현대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교인들에게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은 귀중한 새 그룹의 사람들임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

정 박사는 "세례후보자들은 이전의 이방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교회 앞에 약속한 자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교회의 문턱은 많이 높였지만, 이 문턱을 넘어서 교회로 들어온 이들의 숭고한 결단과 각오를 높이 평가해주었다.

이를 현대의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비록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원입교인이라도 그들이 교회당에 들어선 것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끊기로 결단한 것이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깊은 고민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을 교회가 높이 평가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라'

이어 그는 '세례와 함께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다. "성도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성도들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 그러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별로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성찬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초대교회 세례식은 교회의 연 중 가장 큰 행사였다. 이 날은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다. 세례를 받을 이들은 이 날 만을 기다리며 2-3년을 준비했다. 부활절 새벽에 드디어 세례를 받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할 때 이들이 체험하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순절의 교육적 요소를 회복하라'

"초대교회 신앙교육의 중심에는 사순절이 있었다. 사순절에 행해진 세례자 준비를 위한 집중 신앙교육은 교회의 연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이 기간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날 생명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고, 부활절에 있는 세례와 성찬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순절 전통은 중세를 거치면서 내용 없는 의식적 기간으로 전락했고, 이를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판단해서 폐지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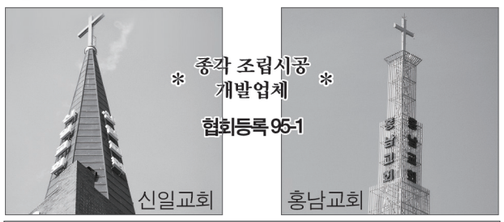
정 박사는 이 과정에서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까지 같이 묻혀버렸다고. 그는 현대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새신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더욱 사모하면서 준비하게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감격을 회복하고 고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정 박사는 "초대교회의 세례자중심의 신앙교육은 그 특성상 새신자를 양육하는 교육이었다. 지역교회를 처음 찾은 이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현대 한국교회에는 전도와 인도를 받아 지역 교회에 첫 발을 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현대 교회는 새신자뿐 아니라 새가족으로 영입되는 성도들도 따로 구분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교회 세례교육의 과제로 '새신자와 새가족을 구분하여 지도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정두성 박사의 초대교회 세례자 중심의 교회교육의 발제는 양적 성장만을 쫓아가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시의적절한 함의점은 제공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이러한 훈련과 순수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 자체로 기독교의 변증이었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오늘의 교회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종각, 종탑, 십자가, 간판



LED십자가, LED간판, 파이프종탑, 점등타이머, 주물종, 기존종각,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 지방출장 환영 ◑

복음공사 152-10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12 대표 백 충 현 장 로

서 울 : 2678-6909 | 2677-4406 | 2616+4312
FAX : 2618-4312 www.gospel04.com 휴대폰 010-3717-9104

종탑 종각 십자가 간판

알미늄 파이프탑 LED십자가 LED간판 회전십자가

· 신개념 LED모듈네온 ·
· 기존탑 진단 및 보수 ·
· 강풍대비 안전시공 ·
· 철저한 사후 서비스 ·
(파이프종탑 개발업체)

한국기독공사 www.gidok04.com

✻ 대표 맹문호 안수집사 (높은뜻섬기는교회) ✻

강풍에 불안한 종탑 자주나가는 십자가네온 전화만 주십시오.

서울사무실 02-2212-5010 FAX.2215-8900 H.P.011-255-1414
남양주공장 031-527-5010 FAX.575-504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339

행복한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단법인 비전위드가 영국 ICSB 영어 훈련원과 함께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 갑니다.

영국 어학연수 및 유학 전문 매니저 +
영국 방학 단기 영어 캠프 +
영국 기독교 학사관, 신앙생활 및 학습관리 Korean youth christian center +
한국인 유학생 맞춤 사역 전문 Bournemouth vision church +
유럽 종교개혁지 투어 전문 +
ICSB (I can speak the bible)성경 & 영어 특강

사단법인 비전위드 대표 김성은 목사
www.visionwith.org 070-4408-0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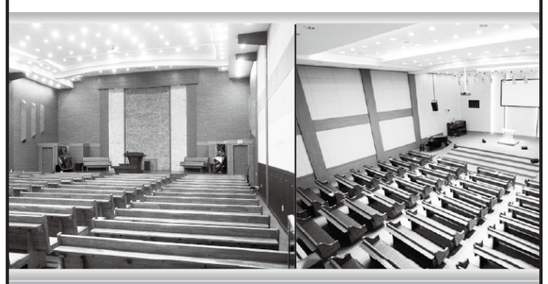
영국ICSB 영어 훈련원 원장 정두성 박사 (Ph.D in Theology)
cafe.daum.net/hangilhouse twostars0101@hotmail.com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개2:9)

아름다운 건물 · 편리한 시설
은혜로운 예배 · 쾌적한 환경

리모델링 · 신축 · 인테리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농 · 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상가 · 지하교회 전문 컨설팅
※ 시온산의 영광은 교회시설 공사만 하는 곳 입니다.(지역불문)

NAVER 검색 시온산의 영광 검색

■■ 교회당시설 전문 컨설팅 ■■
시온산의영광 (주)금하

24시간 대표상담 070-7505-4242
(안전한 인터넷 전화 입니다.) 010-8464-1199

信愛聖具社 信愛聖衣

http://www.shinaesunggu.co.kr

가구는 나무로 만들지만
성구는 기도로 만듭니다

강남 종합전시 판매장

Tel 02.537.7605~6
Fax 02.3477.1184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반포쇼핑 상가 6동 2층
요단기독서적 內